

박상우 장관, “공공주택 건설현장 안전·품질관리 철저” 강조

- '25년 입주 예정인 성남북정1 공공주택 현장 찾아 추진 현황 점검

- 폭염·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·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강조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일(목) 오전 9시 30분 성남북정1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하였다.
-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북정1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4.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, '22년 11월 본청약 최초 시행 및 '25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.
-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, “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 1만호 이상 착공하고,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”라며,
 - 이를 통해 “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, 국민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,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LH 관계자에게 “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”고 요청하였다.
- 이어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”이라고 강조하며, 건설현장 품질과 안전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현장에 주문하였다.
 - 특히, “현재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으로, 건설현장은 실외 작업이 많아 근로자가 폭염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높다”며,
 - “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, 그늘, 휴식 제공이라는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충분히 이행해 줄 것”을 현장 책임자에게 당부하였다.

2024. 8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